

숙성의 마법 ‘로저 구라트’... 시간으로 빛은 까바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4

어떤 스파클링 와인이든 한 모금 하기 전엔 묘한 긴장감과 함께 기대가 생긴다. 삼페인만 할까, 못할까.

좋은 해에만 만든다는 빈티지 삼페인도 36개월 숙성인데 스페인에서 무려 75개월, 초장기로 숙성한 까바(CAVA)가 선을 보였다. 스페인 까바의 선구자 ‘로저 구라트’다.

에두아르드 카프데빌라(Eduard Capdevilla) 쿠네(C.V.N.E.) 수출 매니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저 구라트의 핵심 철학은 장기 숙성”이라며 “다른 까바 생산자와 달리 모든 와인은 빈티지로만 생산해 깊은 풍미와 함께 테루아를 더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네는 1879년 스페인 와인 명산지 리오하에 설립된 와이너리로 산하에 로저 구라트를 비롯해 비나레알과 라발 등 주요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초기 라벨의 필기체 표기에서 V가 U처럼 읽히면서 아예 [쿠네]라는 발음으로 자리잡아



로저 구라트의 장기 숙성을 상징하는 셀러로 지하 약 30m 깊이에 조성됐다. 1km에 달하는 터널형 셀러에서 로저 구라트 와인의 병 내 2차 발효가 진행된다.

버렸다. 먼저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까바는 스페인에서 삼페인과 같이 병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을 말한다. 이때 효모 앙금과 접촉(리즈 컨택)하면서 깊은 풍미는 물론 질감이 더해진다.

로저 구라트는 1882년부터 페네데스 지역에서 까바를 만든 전문 생산자다. 특히 페네데스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한 포도만 사용한다. 잘 익었으면서도 신선함이 살아있어 까바를 만들기 최적의 조건이다.

까바의 법적 숙성 기준은 9개월 이상이다. 로저 구라트는 리즈 컨택을 최소 12~

14개월 이상 진행한다. 더 우아하고, 신선하면서 깊이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카프데빌라 매니저는 “로저 구라트는 수작업으로 직접 굴착한 깊이 30m, 총 길이 1k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셀러가 있다”며 “일년 내내 14도 안팎의 온도에서 다른 방해없이 천천히 숙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와인이라는게 마냥 묵한다고 좋은게 아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도 와인 자체가 시간을 견딜 힘이 있어야 한다. 재배가 힘든 환경임에도 샤도네이와 피노누아에 정성을 들이는 것도 그래서다. 기존 까바에 들어가는 토착 품종과 비교하면 산도나 구조감을 주면서 초장기 숙성



(왼쪽부터)로저 구라트 더 로저마크 II 2017, 로저 구라트 그랑 레세르바 조셉 발스 2020, 로저 구라트 브뤼 밀레짐 2023, 로저 구라트 브뤼 로제 밀레짐 2022, 로저 구라트 브뤼 코랄 로제 2023. /나라셀라

이 가능해진다. ‘로저 구라트 더 로저마크 II’는 로저 구라트가 어떤 와인을 만들고자 하는지가 잘 보여주는 와인이다. 리즈 컨택 기간이 무려 75개월이다.

‘더 로저’로 이름붙인 이 초장기숙성 까바는 포도 재배가 가장 완벽하다 싶은 해에만 만든다. 첫 선을 보인 것이 마크 I’으로 2013년 빈티지였고, 2017년 마크 II가 두 번째다. 효모 침전물을 빼내는 데고르주망을 출고 시점에 맞춰 진행한다. 접점을 감안하면 숙성 기간이 거의 8~9년에 달한다.

2017 빈티지는 까바에 전통적으로 쓰이는 토착품종 차렐로·마카베오·파레아

다 등과 함께 피노누아와 샤도네이를 각각 15%씩 섞었다. 잔을 채운 고운 기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사과 복숭아 등 과실과 말린 꽃향, 여기에 오랜 숙성에서 나온 구운 빵과 견과류 향이 복합적이다. 입안에 남는 미네랄감도 인상적이다.

‘로저 구라트 브뤼 밀레짐 2023’은 토착품종 차렐로·마카베오·파레아로 만들었다. 15개월을 숙성했으며, 균형감 있는 산도와 질감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까바다.

‘로저 구라트 그랑 레세르바 조셉 발스 2020’은 토착품종 외에 샤도네이와 피노누아를 각각 20%, 10% 블렌딩했다. 리즈 컨택 기간은 36개월이다. 밀레짐과 비교하면 확실히 구조감과 신선한 산도가 느껴지며, 짭짤한 미네랄감으로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릴 까바다.

로저 구라트의 로제는 피노누아 품종이 들어가 스타일이 확고하다. 스페인에서 피노누아로 만든 로제 까바는 찾아보기 힘들다.

‘로저 구라트 브뤼 코랄 로제 2023’은 가르나차 70%에 피노누아 30%를 섞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 신선하고 마시기 편한 로제로 만들었다.

/smh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CJ 4DPLEX 기술로 ‘K-콘텐츠’ 수출

송출국가 69개국으로 늘어

극장 산업의 침체와 OTT의 공세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상영 기술이 K-콘텐츠의 글로벌 영토를 넓히는 ‘전략 병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CJ CGV의 자회사 CJ 4DPLEX는 SCREENX와 4DX를 통해 전 세계 누적 관객 200만 명을 기록하며, 한국 영화의 해외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7월 업계에 따르면 CJ 4DPLEX는 지난 2015년 9개국에 불과했던 K-콘텐츠 송출 국가를 현재 69개국으로 늘렸다. 연간 글로벌 관객 규모 역시 2015년 3만 명에서 2025년 30만 명(추산)으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는 관객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에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한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를 정확히 꿰뚫은 결과다. ‘파묘’, ‘부산행’ 등 장르적 특색이 짙은 영화뿐 아니라, 아티스트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하는 K-POP 공연 실황이 이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영화계 및 유통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술 특별관의 확장이 한국 영화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K-무비의 수출이 판권 판매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SCREENX나 4DX 같은 특수 포맷 제작을 통해 해외 극장 수익 배분(RS)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며 “특



SCREENX 상영 장면 연출 이미지. /CJ CGV

수 상영 포맷은 불법 복제가 불가능해 콘텐츠 IP 보호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영관 대비 높은 티켓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한국 영화의 실질적인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CJ 4DPLEX는 단순히 기존 영상을 변환하는 수준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AI와 CG/VFX를 결합해 ‘기술 맞춤형 콘텐츠’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TS, 멕시코 대통령과 환담... 5만명 운집

멕시코 시티 공연 전석 매진 기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멕시코 대통령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대통령궁 발코니에서 5만여 명의 인파와 마주하며 현지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BTS는 6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의 공식 초청을 받아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약 40분간 환담을 나눴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이들의 음악이 우정과 평화,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방문에 각별한 환대를 표했다.

방탄소년단은 세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멕시코 시티의 심장부인 소칼로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모인 약 5만 명 규모의 팬덤 ‘아미’(ARMY)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멕시코의 심장 속에는 언제나 BTS가 있습니다’, ‘웰컴 투 멕시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이들을 반겼다.

이날 리더 RM은 스페인어와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초대와 환대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다가올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으며, 멤버 뷔 역시 멕시코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현장의 대단한 열기에 대



방탄소년단과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 찬사를 보냈. 특히 뷔가 내년 재방문을 약속하자 세인바움 대통령 또한 본인이 직접 재방문을 요청했음을 밝히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팬들의 환호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7일부터 사흘간 에스타디오 GNP 세구로스에서 개최되는 BTS의 멕시코 시티 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을 기록 중이며, 멕시코 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방문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약 1억 750만 달러(한화 약 1,557억 원)로 추산했다. 최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과 타이틀곡 ‘스윘’(SWIM)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석권한 BTS의 이번 행보는 멕시코 현지에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실상 국가적 행사급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규준 기자 ch9720@

롯데시네마, 환아·가족 위한 ‘봄나들이 상영회’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에 추억 선사

롯데시네마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소셜 캐릭터 브랜드 민들레마음과 함께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봄나들이 상영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기 투병으로 영화관 방

문이 쉽지 않았던 환아와 가족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시네마는 행사에 참여한 환아와 가족들에게 팝콘과 음료를 제공했으며, 영화 포토존에서는 폴라로이드 촬영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의료진, 사회복지사들의 응원 영상도 상영됐다. /김서현 기자 seoh@

참가자들은 영화 ‘슈퍼 마리오 갤럭시’를 관람했으며, 상영 이후에는 가족 단위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이벤트도 진행했다.

민들레마음 측은 “아이들이 문화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시네마는 오는 6월 민들레마음과 협업해 환아들의 그림을 활용한 컬래버레이션 굿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미군, 이란항 입항 중인 이란 선적의 빈 유조선 공격, 파괴
▲“러시아 돈 받지마”... 베네치아 비엔날레 앞 ‘분홍 복면’ 시위 /사진 뉴스스

▲스위스 “美·이란 평화협상 개최 의향...모든 당사자와 접촉 중”
▲“기밀로 이란 협상 베딩 말라”...美 국무부, 외교관들에 경고

▲“美재무, 방중 직전 11~13일 방일...다카이치 총리 등 면담”
▲일본·튀르키예, ‘드론 동맹’ 가시화...무인기 공동개발 나선다